

訟 壽 辭

우리나라 환경법학계의 태두이신 오당 이상규 명예회장님께서 고회를 맞이하셨습니다. 이에 기념호를 발간하여 한국환경법학회 회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칠순이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게 청년같은 건강을 갖고 계시며, 지금도 정열적으로 왕성하게 학문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께 「고회」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상규선생님의 존함을 대학시절 때 처음 듣게 되었고, 당시 선생님의 명저인 신행정법론(법문사 간행)을 읽으면서 선생님의 명성을 처음 알게 되어 그때부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대학에 재직하게 된 후에는 선생님의 학문적 깊이를 경탄하며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공법학회의 전국규모 학술대회에 참가해서는 선생님의 빼어나고 출중하신 학술적 경지에 매료되고 감탄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는 물론이고, 최근에도 환경법학회의 일로 찾아뵈실 때에는 따뜻한 학문적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선생님은 고려대 법대에서 객원교수로서 후진을 양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학술활동을 끊임없이 왕성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한때는 행정부에서 고위공직자로서,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로서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크나큰 기여를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희 후학들은 선생님의 행정법, 특히 환경법에서의 학문적 경지를 우러러 존경의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당 선생님의 환경문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이루 필설로 말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환경문제가 터부시되던 1970년대부터 환경분야에
앞장서서 선구자로서 활약을 하셨고, 한국환경법학회를 창립하는데 앞
장섰습니다. 그 후에는 회장으로서 학회가 탄탄한 반석을 마련하는 획
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주시는데 물심양면으로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1997년에는 선생님이 부회장으로 계시는 IPBA와 본 학회가 공동으로
무역과 환경을 주제로 뜻깊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로 인식하시고, 머지않
아 닥쳐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미리 예지하셔서 행동과 실천으로 옮
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애정을 환경법이라는 학문적 차원으로 승화시
키셨습니다. 그리하여 환경법의 이론을 미국 등으로부터 도입하여 맨
앞장서서 1998년에는 환경법론(법문사 간행)이라는 표준적인 교과서를
저술하셨고, 아울러 비중 있는 연구논문을 집필하시는 등 한국환경법의
이론을 체계화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철학이나 활동은 지금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계심을 느낍니다.

우리 한국환경법학회 회원 모두는 선생님께서 더욱 건강하셔서 10년,
또 20년 뒤에도 선생님의 팔순, 구질을 축하하는 훌륭한 기념호가 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과 같이 더욱 건강하시고, 정열적으로 환경법과
행정법 석학으로서,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서, 변호사로서 활동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건강 다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2년 9월

박 수 혁 올림